광주·전남 '자살 신드롬'

경제난·가정 불화 등 비관…IMF 이후 10년만에 다시 고개

올 들어 16명… 23일엔 하루 4건

올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IMF 이후 급증했던 자살이 1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자살 신드롬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16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무능력과 지병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조모(여·24·광주시 동구 계림동)씨가 직장 여직원과 통화한 남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아파트에서는 이모(43)씨가 가출한 아내 때문에 고민하던 중 집 현관에 목을 매 숨졌다. 또 북구 풍향동 이모(61)씨가 가정불화 후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날 하루만 4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김모(47)씨가 자녀의 병원비 등 경제문제와 실직을 비관해 분신 자살하는 등 올 들어 경제난과 신병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3천230명. 이 가운데 ▲신병 비관 613명 ▲치정 및 배우자 부정 41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경제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자 수는 지난 2002년 569명에서 2003년 635명으로 늘었고, 2004년에는 768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05년에는 713명으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45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장기불황과 실업 여파로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IMF 때의 자살 신드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병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병원 박찬원 원장(신경정신과)은 "직장 동료와 가족, 친구 사이의 대인관계가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방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위의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기 불황의 그늘…'

서민 울리는 신종 사기

"부동산 팔아주겠다" "환급금 돌려주겠다" 전화이용 사기 조심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각종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정보지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거나, 각종 연금 환급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아파트를 팔기 위해 최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김모(52)씨. 김씨는 지난 19일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김씨에게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빨리 팔 수 있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남자의 해박한 세법(稅法) 지식에 속아, 4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을 보냈다.

2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힌 김모(19)군과 이모(19)양. 연인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C찜질방에서 임모(34)씨의 사물함 열쇠를 훔쳐 수표 40만원과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갔다. 김군 등은 휴대전화를 검색해 임씨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찜질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나갈 수가 없으니 찜질방 주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만 38만원에 달했다.

군(軍)에 입대한 아들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사기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병무청은 범인들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24일 '사기주의보'를 내렸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김양식장 염산 판매 완도해경, 50대 검거

김 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 공업용 염산(무기산)을 팔려던 업체가 또 적발됐다.

완도해경은 24일 무기산을 트럭에 싣고 도서 지역으로 들어가 어민들에게 판매하려 한 박모(51·순천시)씨를 유해화학물 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자신의 5t 화물차에 무기산 305통(6천100ℓ)을 싣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로 향하는 배를 기다리다 검문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전북 군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무기산을 싣고 왔으며, 1통(20ℓ)당 1만2천원을 받고 김 양식 어민들에게 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제조업체가 30만원을 주고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팔라고 해 따랐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제조업체가 이전에도 완도지역 어민들에게 무기산을 팔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김 양식 어민들은 김에 붙은 잡태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값싼 무기산을 선호하고 있으나,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부작용이 커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즐거운 '동물아카데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4일 열린 '동물아카데미'에 초청받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425명이 전시 중인 하얀목 도마뱀을 만져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300종 1천 마리의 희귀동물이 전시되고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험사기' 병·의원 8곳 압수수색

조직폭력배가 낀 보험사기 사건〈본보 2006년 12월8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47개 병·의원급 병원 가운데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험회사 측과 함께 지난 2년 동안의 ▲컴퓨터 기록 ▲장부 ▲간호사 진료 기록카드 등 관련 자료를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치료도 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고 ▲입원 시간을 조작해주거나 ▲입원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혐의다.

경찰은 또 119구급차 출동기록장부도 분석, 소방관들이 병원과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북부경찰은 지난해 5월과 12월 보험사기 의혹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 관련자 180여 명을 입건, 17명을 구속했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업무 스트레스로도 간질환 악화"

법원 인과관계 인정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기능이 저하되면 간경변·간암으로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김씨가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산업의학회 등에 따르면 적어도 인체의 면역체계가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이는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 있어 어떤 요인으로 면역성이 약화되면 간염바이러스가 증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돼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2002년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 질환 의 발병·악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연합뉴스

간염 보유자 입사 불합격 인권위 "차별"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K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었다"며 "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병원 난동에 경찰 폭행

광주 동부경찰은 24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권모(27·순천시 조례동·무직)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jhlim@

"동거녀 찾아내라" 자살 위협 난동

쌍나팔

○…술에 취한 50대 남자가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 등과 대치.

○…나주경찰에 따르면 트럭운전자 N(51)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20분께 나주시 남평읍 자신의 집에서 LPG 가스통 밸브를 연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애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질식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N씨는 설득에 나선 경찰 및 소방대원과 1시간 가량 대치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동거녀가 현장에 나타나자 소동을 멈췄다고.

/나주=최승렬기자 srchoi@